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3회 지역서점 육성 포럼 개최

"지역 서점 · 중소 출판, 상생의 길 모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가톨릭청년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지역서점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연말부터 서점 종사자, 출판사 대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지역 서점의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해법을 논의한 것을 정리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마지막 지역서점 포럼이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재호 원장은 인사말에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인프라로 인문학을 지목했다. 인문학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출판계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영세한 출판사와 서점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윤세민 경인여대 교수의 사회로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역서점 육성포럼 경과보고'를, 정광진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 출판사와 지역 서점 전략적 협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수열 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이 '출판주체의 경쟁력 강화가 살길이다', 김태영 씽크스마트 대표가 '출판의 다양화, 1인 출판을 위한 유통체계가 시급하다', 최성구 출판유통진흥원 기획관리팀장이 '출판유통환경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남석순 한국출판학회 명예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의 개선방안을 제언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중소출판사와 지역서점의 전략적 협력 방안

주제발표에서 정광진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 출판사와 지역서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적 도소매업 종사자 규모별 현황을 보면 5인 이하 출판사가 총 출판사의 66%, 서점은 90%였다. 이들의 연대는 극단적 자본 싸움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출판 및 서점계에서 당연한 일이며, 연대 안에서 상생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혜화동에 위치한 '책방 이음'처럼 개별적 지원이나 협력을 시도하는 곳도 있지만 전체로 확산되기에는 개별 출판사나 작은 지역서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중소 출판사와 지역 서점이 각각의 연합체를 구성해 서로 긴밀한 관계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진 이사장은 중소 출판사와 지역 서점의 협력에 대해 ▲좋은 책 선정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사업 ▲신간 공동구매 및 책임판매제에 대한 협력

▲전문서점과 출판사와의 공동마케팅 및 공동출판 사업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가 참여하는 마을서점 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좋은 책 선정 사업

당장의 매출을 위해 판매 위주의 베스트셀러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좋은 책'을 선정해 진열 판매하면서 독자들과의 만남을 확대시키는 방식은 지역 서점이 꼭 해야 할 사업 중 하나다. 여기에는 지역 서점 종사자들의 개인적 판단보다는 중소 출판사와 지역 서점이 협력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출판사가 신청한 신간을 대상으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좋은 책'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같은 제도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독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왜곡된 베스트셀러로 인한 불신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사업

지난 2월 김용택 시인과 함께 저자와의 대화를 가졌던 '김제삼화서점'은 5월 25일 김제시립도서관과 협력해 '탁류와 함께하는 채만식 문화기행'을 진행했다. 문학관 등을 돌아보고 채만식 문학작품을 조명한 이 행사는 지역민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했다. 충주에 위치한 '책이 있는 글터' 서점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검은 망토를 둘러입고 고깔모자를 쓴 '책 읽어주는 마녀'가 등장해 한 시간 정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고 한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독후활동까지 하는데, 아이들과 부모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한다.

신간 공동구매 및 책임판매제에 대한 협력

신간 공동구매란 지역 서점과 중소 출판사간 연합체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사들의 출간 예정 신간에 대한 구매부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안이다. 출판사에서 출간 예정 도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서점 연합체에 전달하고, 서점 연합체에서는 각 서점주에게 도서에 대한 구매의사를 파악해 출판사에 공동구매 형태로 피드백하게 된다면, 출판사로서는 과잉생산 및 과대재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서점에서는 반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도서의 과다보유가 줄어 관리가 원활해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책임판매제란 공동구매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방안으로, 서점의 판매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서점 공급가로 지역서점에 도서를 공급하고 반품을 받되, 서점에서 반품에 대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서점과 출판사와의 공동마케팅 및 공동출판 사업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문서점을 지향한다면 출판사는 앞서 언급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사업'과 더불어 출판사와 연계해 전문화된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거나, 신간도서에 대한 도서목록 제작 등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단순한 공급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넘어 공동출판의 형태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공동출판이 가능해진다면 출판형태에 또 하나의 바람직한 성공사례가 될 것이며 이후 전문서점과 출판사는 보다 더 긴밀한 유대관계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지식문화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가 참여하는 마을서점 사업

뉴욕 브루클린 포트 그린 지역에는 지역서점 '그린 라이트'가 있다. 창업자 레베카 피팅과 제시카 스톡튼은 자기들의 꿈인 서점을 차리기 위해 투자자를 찾다가 돈이 많은 지역사회인 이곳을 주목했다고 한다. 당시 그곳 주민들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레스토랑, 카페 등 상권이 형성됐지만 서점이 없어 불만을 가졌고, 레베카 피팅과 제시카 스톡튼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주면 멋진 서점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25명의 주민들로부터 7만 달러를 빌리고, 뉴욕시의 지원과 자신들의 종잣돈을 합쳐 '그린 라이트'라는 서점을 창업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지역민들이 서점의 주인이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동네 소형서점이 살아남지 못하면 대형출판사 몇몇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출판사들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서점과 지역주민, 그리고 출판사가 협력해 다같이 주인이 되는 서점으로 탈바꿈한다면 충분히 대형서점 및 온라인서점과 경쟁해볼만한 모델이 되리라 본다.

인사말을 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이재호 원장

주제발표를 하는 정광진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제3회 지역서점 육성 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